

광양시, 용강지구~동천~광양읍 연결 '녹색 도시' 구축

164억 투입...동천 중심 도로 개선, 녹지·경관광장·보도교 조성 추진 공원 녹지 효율성 높이고 종합 유지 관리...편입토지·지장물 보상 진행

광양시가 용강지구, 동천, 광양읍 등 도시를 잇는 공원녹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광양시는 164억원 투입해 광양읍 동천을 중심으로 도로 개선, 녹지공간·경관광장·보도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양시가 세운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라 공원 녹지 축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적인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원녹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공원 144곳, 광장 11곳, 유원지 2곳 등 총 157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광양읍의 경우 옛 광양읍 성터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과 목성지구, 용강지구 등 신도심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광양시는 광양읍 용강지구~동천~원도심을 유기

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동천 도로 개선 공사를 포함해 동천 경관광장 조성, 보도교 설치 등을 펼치고 있다.

우선 대규모 공중주택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용강·목성지구에는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기존 동천 산책로와 연계한 118m 길이 보도교를 만든다.

그동안 남해고속도로 광양나들목(IC)과 동천이동에 불편함이 있어 동천을 횡단하는 보도교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광양시는 보행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관계부서 협의, 하천점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도교 설치를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천 경관광장 연결도로는 시비 2억원을 투입해 개선 공사를 벌였다. 이 연결도로는 남해고속도로 광양 요금소(톨게이트)와 주요 간선도로 통과 구간이 있다. 교통량이 많고 보행로가 없는 구간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실시 설계용역을 벌여 지난 3월

보행로 개설 등 도로 개선 공사를 마무리했다.

목성지구와 용강지구 단지 도로가 설치되면 동천 경관광장을 거쳐 광양읍 도시를 연결하는 보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광양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는 용강교차로에서 동천 변을 잇는 경관광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곳은 녹색 공간을 넓히고 동·서천을 연결하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광양읍 용강리 820-1번지 일원에 사업비 132억원을 투입해 면적 2만3863㎡에 달하는 대규모 광장이 들어선다. 친환경 편의시설을 조성해 특화된 휴게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이달 현재 편입토지·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공원녹지 및 광장은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의 기초이자 녹색 도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분야"라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 시설을 구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보행 안전을 위한 각종 공원녹지 시설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가 광양읍 동천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있는 '동천 경관광장' 조감도. <광양시 제공>

“우주선 철도” 건설시 고흥-서울 2시간30분 단축

고흥군, 사업 타당성 토론회 ‘5차 국가철도망 구축’ 반영 계획

고흥군은 지난 12일 고흥-별교-부전을 잇는 '고흥우주선 철도건설'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고흥우주선 철도건설은 경전선 목포-별교-부전역(부산) 구간 중 별교역에서 고흥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

고흥군은 지역 여론을 받아 전남도와 함께 고흥우주선 철도사업 타당성 향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사업안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시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흥우주선 철도건설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고흥 철도건설은 가능성이 있다"며 "고흥우주선 철도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계획해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흥우주선 철도가 건설되면 고흥-서울 간 이동시간이 현재 약 5시간에서 2시간 30분대로 줄어든다"며 "수도권, 부산·울산권, 광주권역과 고



고흥군이 지난 12일 연 '고흥우주선 철도 사전 타당성·발전전략 토론회'에서 공영민 고흥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속 교통접근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신순호 목포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원대 이민규 교수, 이상준 전남연구원 박사, 오동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 김연규 삼보기술대 박사, 조항용 박사(대한교통학회 제주지회장), 김승일 고흥철도추진위원장, 송원종 고흥군 건설과장이 참여했다.

고흥군은 오는 5월23일 여수 엑스포에서 열리는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고흥우주선 철도건설의 필요성'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철도망 구축은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중요한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접근성이 개선되면 지역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우리 군에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고흥 어린이, 미션 수행하고 NASA 가자

우주기자단 모집... 5~9월 현장 교육·온오프라인 미션 수행

고흥군이 어린이 우주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이달 중 2024 어린이 우주기자단을 모집한다.

어린이 우주기자단은 고흥군과 국내 유일의 과학 미디어인 ㈜동아시아언스가 공동 기획한 어린이 우주과학 인재 양성 프로젝트다.

어린이 우주기자단은 초등학교생이면 누구나 동아시언스 팝콘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어린이는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보령 등 우주산업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현장 교육과 온오프라인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우주기자단은 첫 오프라인 과제로 오는 5월4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를 탐방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 및 기사를 작성한다.

4개월간 진행되는 다양한 미션 수행 결과 30명

이 우주 홍보대사로 선발되고, 오는 9월 중 우주 캠페인 페스티벌에서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3인이 '어린이 우주인'으로 선발되면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 해외 우주센터를 탐방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12월 ㈜동아시아언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의 우주·항공 분야 콘텐츠와 ㈜동아시아언스가 보유한 분야별 인력풀 및 다양한 홍보 채널을 연계, 고흥군 브랜드 강화와 과학 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미래 우주시대에 어린이들이 우주를 꿈꾸고 우주에 도전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우주기자단 참가 어린이는 발사체와 위성은 물론 우주 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버스 타고 달디단 밤순천·봄순천 여행

순천시, 5월 한달 매주 화~일 시티투어... '정원의 밤' 신규 운행

순천시가 '정원의 밤'으로 새롭게 단장한 5월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5월 시티투어 버스 '달디달 달디단 밤순천, 봄순천'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매주 화~일요일 운행한다.

시티투어 야간 구간에는 '정원의 밤'을 신규 운행하기로 했다.

셋째·넷째 주 토요일에 순천역에서 오후 6시 출발해 야간 개장하는 순천만국가정원부터 아랫장 야시장까지 가보는 구간이다.

우주인이 착륙한 다리를 형상화한 '스페이스 브릿지', 노을정원에 들어선 '두다하우스', '수상퍼레이드' 등 밤에만 볼 수 있는 정원의 야경을 관람할 수 있다.

수요일에는 사찰여행이 진행된다. 순천의 대표적 사찰이며 오랜 역사와 전통이 깃든 송광사와 선암사를 갈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암사와 대한민국 삼보사찰 중 하나인 송광사에서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전통 산사 문화를 느낄 수

있다.

첫째·둘째 주 토요일에는 이달 선보인 '촌장스' 구간을 계속 운행한다. 자연 속에서 산책도 하며 마을에서 난 고들빼기로 만든 시골밤상을 경험하고, 마을 숙소에서 머무르며 농촌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 연인, 친구 등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구간을 준비했다"며 "순천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훨씬 아름답다"며, 5월 여행도 시티투어 버스타고 순천에서 달달한 봄과 밤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티투어 버스는 5명 이상 예약하면 운행한다. 1박 2일 여행은 운행 당새 전까지 사전 예약해야 한다. 당일 버스를 운행하면 현장에서 탑승할 수 있다. 5월4~6일 어린이날 연휴에도 휴무 없이 운행한다. 순천시투어 이용요금, 운행코스 등 상세 내용 확인과 온라인 예약은 순천시 바로예약(suncheon.go.kr/yeak)에서 할 수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 동윤천 생태하천 '꽃창포'로 수질 정화

중금속·악취 제거 능력 탁월 군-15개 단체 1만1000본 심어

보성군이 최근 주민들의 산책길인 동윤천 생태하천길의 수질개선 및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꽃창포 1만1000본을 심었다.

꽃창포는 중금속, 영양염류 흡수와 악취제거 능력이 뛰어나 수질정화식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수생식물로 이날 식재에는 보성군청년협의회를 비롯한 15개 지역단체가 동참했다.

이번 꽃창포 식재 행사에 함께한 보성군청년협의회는 무료 차 나눔 행사를 진행했으며, 꽃창포 식재뿐만 아니라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임태욱 보성군청년협의회 회장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후 행동에 청년들이 앞장서 행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노력이 동윤천의 건강성 회복과 이웃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서경재 보성군 기후환경과 주무관은 "녹차밭보



김철우(가운데) 보성군수가 호미를 들고 꽃창포를 심고 있다. <보성군 제공>

성향토시장에서 장미힐아파트 부근까지 이어지는 동윤천 생태하천길 1.1km 구간을 매년 수생식물 보식, 정비 등 꾸준한 관리를 통해 생물 서식지 및 하천 주변의 문화와 연계된 삶의 공간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은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시, 탄소중립 실현 '기후보호주간'

해양·기후 보호 인식 고취... 18~20일 특강·자전거 행진 등

여수시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17회 기후보호주간 여수 2024' 행사를 연다.

행사 주제는 '내일이 행복한 여수!, 지속가능발전 목표표 실천'이다.

이번 행사는 '2050 여수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기후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도를 높이고자 민관 산학 공동으로 추진한다.

오는 18일에는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정연경 지속가능발전연구소소장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 방향'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친다. 같은 날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교통문화 홍보도 진행한다.

19일 오전에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에 맞춰 '연등천 생태지도 조사단 발대식'이 열린다.

오후에는 시민들이 동참하는 '공공기관·공동주택 소등행사'가 이어진다. 당일 공공기관에서는 '차 없이 출근하기'가 운영된다.

마지막 날에는 지구의 날과 자전거의 날을 기념해 쓰레기를 줍는 '탄소중립 플로깅'을 펼친다. 자전거 동호회들은 자전거 행진을 한다. 오후 2시부터는 여문공원 아이나래놀이터 일대에서 기념식을 연다.

이날 어린이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와 기념식을 연 뒤 '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3) 자원순환 홍보' '다육이 화분 심기' '중고 장터 운영' '업사이클링(자원 순환) 체험 꾸러미'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군, 전기 이륜차 최대 300만원 보조

올해 38대 보급...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 국비 20% 추가 지원

구례군이 올해 전기 이륜차 38대를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 이륜차는 일반 26대, 우선지원 4대, 배달용 8대로 나뉜다. 구매보조금은 예산 소진 때까지 보급 차수에 따라 최소 140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구례에 사는 군민 또는 법인인 기관은 누구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뿐만 아니라 농업인에게도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사는 경우에는 유형·규모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 10%가 추가 지원된다. 전남도 도내 생산 제품(에이치비) 구매 때는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청 누리집(gurye.go.kr) 고사·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구례군 환경과(061-780-2154)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